불자 세상보기

국민연금은 복지국가의 씨앗



이용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노령수당을 약속한대로 2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며, 그것도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나라가 시끌벅적 하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불구,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통한 장기 소득보장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그 재원은 이해 당사자의 갹출료로 충당한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개념에 있어서 시혜자의 기여가 없이 시행되는 공적부조(Publlic-Aid)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 차원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나 의료비,교육비,장제비나 해산비,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국민복지 의식이 좀 모자랐던 수준이어서 복지제도의 목적이나 수단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지 않았다.

1973년에 입안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도 그러했다.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기에서 국민연금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결국 석유파동 등의 상황 때문에 뒤늦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충당 방식에 따라서 '적립방식(Funded-System)' 과 '부과방식(Pay-as-you-go)' 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적립방식에 부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제도 입안 당시에 40~5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되는 설계였기 때문에 새삼스레 현재 시점에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큰 일이 날것처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나마 고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999년과 2006년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노령연금을 평균임금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또 50%로 하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40%까지 줄여가도록 조정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나 시혜의 효율성, 형평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몽니를 부릴 국민은 별로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 개정만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럴만 하다고 납득했기 때문에 갹출료를 더 내고 시혜율이 줄어드는 제도의 변형을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노령수당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계획대로 100% 집행되기는 어렵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항목간 전용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계정과 노령수당이라는 계정은 별개의 계정이며 전혀 전용 대상도 아니고, 연동해서 예산 집행을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았을 때는 그에 상응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면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믿음을 주는 일이다.

농사짓는 촌부도 먹을 것이 궁해 아사직전에 가지 않는 이상 , 파종하기 위해 곳간에 저장한 종자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좀 더 가진 사람에게 구걸을 할지언정 종자를 털어내어 허기를 면해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진정 국민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제도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경제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 대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령수당은 공적부조이며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의 보장이다. 국민연금은 그 기반 위에 미래 생활의 질을 담보해 가는 복지국가의 씨앗이며 가능성이다. 그 종자돈과 노인수당을 연동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국가지도자의 의식 속에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성숙된 복지국가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자라보고 놀란 국민들의 가슴을 솥뚜껑 보고 놀라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 국민을 놀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금강산 신계사 6주년 소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부처님 품안으로



제정 스님
前 금강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신계사 도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2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낙성 6주년 기념합동법회를 열었다.

부처님과 법기보살이 상주하시는 금강산! 그곳으로 떠나던 날 2013년 10월 12일은 금강산 신계사 낙성 6주년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기 위한 날이었다. 가을하늘은 청명하였고 흰 구름은 한없이 평화로왔다. 군사분계선은 아상에 집착한 인간들에게만 있는 선이었지, 맑은 가을은 남이니 북이니 하는 경계가 없었다.

남북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평화롭게 금역의 땅을 오가는 바람과 산들 바람에 몸을 의탁한 산새들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화려한 깃을 뽐내는 꿩 한 쌍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우리들을 반기기라도 하듯이 길옆에서 날개짓하였다. 꿩이 날아간 그곳에는 은빛 물결로 찰랑대는 억새꽃들이 가을햇빛에 눈부시었다. 하지만 인간들이 쳐놓은 철조망은 검붉은 녹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분단 현실 앞에서 이산가족들과 남북경협 사업가들이 흘리는 피눈물로 보였다.

얼마전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준비로, 남북측의 출입사무소는 잠시 활기가 돌았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작년보다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의 잡초도 제거된 상태였다. 행사의 갑작스런 중단사태로 현대아산 등 관계자들이 철수한 뒤 온정각 주변은 더욱 쓸쓸한 분위기였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극락고개 대신 수구너미 고개를 넘어간다. 고개넘어 금강산 안자락에는 내가 4년간 불사를 했던 신계사가 있다. 나는 그곳에 부처님 품안처럼 편안하게 안겼다. 지난 대작불사 기간 같이 고생했던 북측의 동무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삭발한 스님들도 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신계사 도량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세존봉 하관음봉 문필봉 집선연봉 등은 정답게 의구하였다. 남북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 신계사는 대학입시 기도도량으로 이름을 날 것이 분명하다. 정기가 센 금강산의 문필봉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계사 큰 법당에서는 남북의 불교도들이 거룩한 법회를 열었다. 몇 년째 법회를 하다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더 많아졌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듯하였다. 내금강의 표훈사 주지스님 등 지역의 여러 스님들도 참석하였으니 금강산 축제가 된 날이었다.

온정각에는 이전과 다른 간판들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남북관광 단절이 된 이후부터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쉽지만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이곳에 있어야 할 남측의 사업자들은 지금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등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도탄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전에 광화문일대에서 '남북경협 재개촉구' 시위현장에서 만난 어느 사업가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내 손을 꼬옥 잡았다.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들이 금강산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社說

불광 전법은 한국불교의 성공 모델

한국 불교 도심 포교의 모범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는 광덕 스님(1927~1999)은 1974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 를 모토로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했다. 도심 정기법회와 함께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 창간,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 경전 한글 번역, 찬불가 제작, 사회봉사활동 등 '불광 운동' 을 활발하게 펼치며 산중에만 머물던 한국 불교의 영역을 넓혔다. 불광회가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세운 불광사는 도심 포교당과 도심 법회의 새 모델이 됐다. 불광회의 성공은 이후 능인선원, 구룡사, 한마음선원 등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심 포교당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불교의 현대화 · 대중화 · 생활화를 기치로 한국불교 새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잠실 불광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월 13일 신축법당을 준공하고 제 2의 불광운동을 펼칠 예정이서 주목된다. 서울 불광사 신축법당은 연건평 9664㎡(3000평)에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현대 건축양식과 전통 불교건축양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다.

지상 4층까지는 현대 건축양식에 따라 대리석 건물로, 꼭대기인 5층에는 전통양식의 대웅전을 올렸다. 또 도심지임을 감안해 지하 2~4층을 하나로 터 법당인 '보광당' 을 구성했다. 지하 3층 발코니 석까지 법회를 볼 수 있는 보광당은 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지역 최대다. 이번 중창 불사는 단지 건물만 새로 지어 외양만 화려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회주인 지홍 스님이 언급했듯이 21세기에 걸맞은 제 2의 불광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돼야 한다. 불광의 전법 정신은 바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한국불교 발전의 해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광회가 이번 제 2의 중창불사를 계기로 광덕 스님의 도심 포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자비 손길을 내밀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추가 되길 바란다.

황룡사 복원과 대한민국의 염원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13년 앞둔 645년에 완공됐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과 중국과 왜의 견제를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선덕여왕은 당시 고승으로 추앙받던 자장율사에서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물었고 율사는 처방으로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제안했다.

위기의 신라가 높이 80m, 아파트 27층 높이의 거대한 목탑을 세운 이유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의 의미 외에도 선덕여왕의 복덕과 지혜, 그리고 지도력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당시 신라의 대탑 불사에 고구려와 백제의 고승들은 물론이고 석공, 목공, 도공, 와공, 대장장이 등 당시의 첨단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모여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황룡사 복원의 기간 시설인 '황룡사 연구센터' 의 기공식을 10월 21일 열었다. 2015년 완공을 목표인 연구센터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 홍보,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주시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황룡사 복원 사업은 2035년까지 장장 30년 동안 이뤄지는 대형 사업이다. 사업의 하이라이트인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황룡사 복원 사업에는 그 옛날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선조들의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문화강국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의 복원을 통한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황룡사 9층탑 복원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